# **CONTENTS**

2010 봄호 Vol. 16호

###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발행인

김태현

### 실무위원

마경희 · 박복순 · 전기택 이미정 · 이미화 · 이선주

### 편집인

김은경

#### 기획 및 편집

이경식

### 표지사진

김광숙(www.supil.co.kr)

### 디자인 및 인쇄

대한정보인쇄(주)

TEL. (02)2632-0416~8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이 나 본원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002 편집자의 글 | 김은경

### 기획특집

### 지방선거와 여성

**004** 2010 지방선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고찰 | 김형준

014 바이에른주를 통해서 본 독일의 지방자치와 여성 | 김은주

023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가 의정활동에 미친영향 - 10개 지역 기초의회 분석을 중심으로 - | 김원홍

### 이슈브리프

032 퍼플잡 추진을 위한 과제 | 최숙희

039 기혼 여성 임금근로자의 근로실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초분석 | 이택면

046 고령화 사회의 젠더이슈 | 박영란

055 여성의 사회적 존재성과 인터넷 | 이동훈

# 국제리뷰

**060** Labor Right for Domestic Workers | 민현주

### 연구노트

066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스웨덴,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 홍승아

072 젠더적 관점의 휴먼뉴딜 방안 | 변화순

# 여성정책동향

078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1/4분기) | 문희영

084 2010 연구과제 소개

089 2010 연구사업 목록

**090** KWDI 동정

## 상시안내정보

094 여성연구 · GSPR · 젠더리뷰 투고 안내

097 자료이용서비스 안내

김 은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 · 정보팀장

2010년 한국의 봄은 지방선거 준비로 분주하다. 여성정책이 응집되는 계기가 되는 선거철 이면 쏟아지는 공약 속에서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06년에 이어 여성후보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 안'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내는 경우,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 의회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여 여성의원 비율이 15% 정도 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함에 따라 의정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남성의원들이 덜 관심을 가졌던 육아 등 복지분야,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한 여성분야의 조례가 증가한 것이다. 조례안 등 양적인 변화 이외에도, 여성의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남성의원의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점은 지방의회의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이번 젠더리뷰 봄호에서는 6월 2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바뀐 선거제도는 무엇이며, 여성의 의회진입으로 의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국내외 사례로 조망해보았다.

이밖에 최근 여성계의 화두 중 하나인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퍼플잡의 의미와 해외사례, 기혼여성의 고용과 일자리 특성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소고와 주요 언론사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과장되고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 글을 실었다.

한편, 2010년 연구과제는 매호 5과제씩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여성 장애인 지표개발연구,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4차년도 연구),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4차년도 연구), 지방의회 여성의원 경력 지속 및 확충방안 연구에 대해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유난히 길고 눈이 많았던 지난 겨울을 뒤로하고 화창한 봄을 맞이하는 마음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고 먼 얘기로만 생각되는데, 젠더리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